삶 속 예술 향연, 창작관현악 백미를 만나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with 아창제…오늘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역대 아창제 선정작 중 '천마도'·'어린 꽃'·'진혼' 등 5개 작품 무대

전통·현대를 아우르며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아르코한국창작음악제 무대를 펼친다.

아창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의 대한민국 대표 창작음악제다. 기존 서양 고전음악이 주를 이루는 한국 음악시장에서 창작곡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작곡가와 지휘자, 연주자가 창작음악을 부담 없이 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르코는 기획연주회 '아창제'를 통해 그동안 작품공모에 선정된 국악부문 관현악 작품들이 레퍼토리화 될 수 있도록 역대 선정작을 지역에서 선보이고 있다.

이번 '아창제' 공연은 아르코와 광주예술의전당이 공동 주최하는 특별연주회다. 공연은 25일 오후 7시30분 전당 대극장에서 열린다. 광주 관객들에게 우수한 한국 창작관현악곡과 아창제 작곡가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공연에서는 역대 아창제 선정작 중 국악 창작관현악의 매력을 가득 담은 다섯 작품을 엄선해 선보인다.

제11회 선정작 김기범의 국악관현악을 위한 '천마도'를 비롯해 ▲제13회 선정작 손다혜의 25현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어린 꽃' ▲제11회 선정작 양승환의 대금 협주곡 1번 '린포체' ▲제11회 선정작 이예진의 타악기를 위한 협주곡 '기우' ▲제9회 선정작 이정호의 합창과 진도씻김굿, 국악관현악을 위한 '진혼'이 연주된다.

첫 무대를 여는 김기범의 '천마도'는 천마의 살아 움직이는 듯한 눈빛과 여기에 깃든 장인정신에 영감을 받은 곡으로, 우리 전통회화가 가진 가치와 고유한 아름다움이 우리 음악을 통해 깊이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손다혜 작곡 25현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어린 꽃'은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을 마주하며 느낀 감정과 사회에 주는 메시지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염원을 담은 곡이다. 협연에는 국립국악관현악단 가야금 수석 문양숙이 함께한다.

양승환 작곡 '린포체'는 2017년 다큐멘터리 영화 '다시 태어나도 우리(언제앙뚜)'를 감상하고 영감을 얻어 작곡한 곡이다. 김계선 명인이 1930년도에 녹음한 '청성자진한잎'을 주제 선율로 삼아 총 3개 악장으로 새롭게 구성했다. 협연에는 국립국악관현악단 대금 수석 박경민이 함께한다.

이예진 작곡 '기우'는 비가 오기 전 하늘의 모습을 소리로 표현한 곡이다. 협연에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타악 차석 이왕재가 함께한다.

마지막으로 이정호 작곡 '진혼'은 무속음악 '진도씻김굿'을 모티브로 쓴 국악 레퀴엠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을 위로하기 위한 작품이다.

협연은 소리꾼 박성우(국립창극단 단원), 전지혜(전남도립국악단 상임단원), 광주연합합창단이 함께한다.

광주연합합창단은 광주시립합창단, 광주동구합창단, 광주서구여성합창단, 광주북구합창단, 광주남성합창단 약 150명이 모인 단체다. 광주를 대표하는 예술단이 우리 창작음악을 알리기 위해 한마음으로 모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지닌다.

지휘를 맡은 박승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는 "이번 아창제 기획공연은 국악의 멋스러움과 깊이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도움 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훌륭한 우리의 창작음악을 광주시민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박승희 지휘자

'있어서 잇는 자연과 우리'

은암미술관, 27일부터 체험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진행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우는 특별한 문화예술교육이 펼쳐진다.

은암미술관은 오는 27일부터 9월28일까지 2024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프로그램 '있어서 잇는 자연과 우리'를 진행한다.

'있어서 잇는 자연과 우리' 프로그램은 '환경'을 주제로 자연의 중요성을 아이들과 함께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다.

각 회차별 전문 강사와 함께 자연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이 운영되며 참가자들은 자유로운 감정 표현 및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미술, 무용을 융합해 환경과 관련한 창작체험 작품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총 10회차로, 교육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27일 첫 번째 프로그램은 '자연과 우리-맨땅에 맨들기'다. 백상지, 백색천을 활용해 자연의 다양한 형태와 움직임을 탐구한다. 자연의 곡선과 직선을 몸으로 표현해가며 각자의 생각대로 다양한 연출을 해볼 수 있다.

한편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초등학생(4-6학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접수는 방문 및 전화(062-226-6677)로 가능. /최명진 기자

4차시 도자체험에서 만들어보는 '밀씨글라스 목걸이'

'잃어버린 파라다이스'

이이남 미디어아트 '잃어버린 파라다이스'

올림픽 기간 파리서 빛난다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2024 파리올림픽 기간 한국 미술을 알리는 작품을 선보인다.

이이남 작가는 오는 26일부터 8월25일까지 열리는 파리 그랑팔레 이메르시프 전시 '디코딩 코리아'에서 한국 근현대 역사의 질곡과 영광의 순간을 담아낸 작품 '잃어버린 파라다이스'를 전시한다.

이 작품은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이슈를 결합해 만화적 요소와 고전회화를 한 폭의 병풍으로 연출해 구성된 것으로,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현대사회의 풍경을 동·서양, 낮과 밤의 시간의 흐름과 초현실, 종교, 국가와 국가 간 등 상반된 요소들로 표현해냈다.

디지털 캔버스 위 충돌하고 공존하는 이중적 세계는 현실의 경계를 나타냄과 동시에 현대사회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한다.

대중과의 친밀한 소통을 추구하면서 삶의 가치와 행복, 역사적 경험의 중요성을 담아내는 한국 현대 미술의 독창성과 사회적 메시지를 반영한다.

전시가 열리는 파리 그랑팔레 이메르시프는 예술과 기술 그리고 감성이 조화롭게 융합된 공간으로, 몰입형 상호작용 디지털 전시를 기반으로 관람객들에게 예술을 발견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한다. /최명진 기자

광주시립극단, 제3회 창작희곡 공모전 개최

10월25일까지 접수…광주 역사·전설·인물 등 소재

광주시립극단이 대표 레퍼토리 개발 및 브랜드공연 제작을 위해 제3회 창작희곡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광주의 역사·전설·인물·정서 등으로, 100분 내외 공연이 가능한 창작희곡이면 된다. 공모 기간은 오는 10월25일까지 약 3개월간이며 기성작가를 대상으로 한다.

순수 창작물로 신춘문예, 문예지 등 어떠한 지면(인터넷 매체 포함)에도 발표되지 않은 작품, 공모 및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작품, 낭독 및 워크숍 등을 포함한 각종 공연에 출품되지 않은 작품만 응모할 수 있다.

최종 당선작 1편은 오는 12월6일 발표할 예정이며 상금은 1천만원이다.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